

1988년 8월 창립한 KT링크스(주)는 주로 공중전화 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8년 7월 『KT텔레캡』으로 무인방범 출동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다.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대한민국의 무인방범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은 눈부신 성장뒤에는 고객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직원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이에 강남지역본부 정경배 본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 KT 텔레캡

## 케이티링크스(주) 강남본부장 정경배



먼저 KT텔레캡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KT텔레캡”은 지난 '90년대 중반 경찰청과 협의하여 KT가 사업을 시작한 국민방범 서비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 상품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순수 국내토종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곳곳에 이미 구축된 통신망 등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가격 또한 저렴하여 사업을 시작하지는 채 10년이 안되었으나, 지난해말 가입자 20만, 매출 1천억을 상회한데서 보듯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감지기 신호경보에 의한 출동대처라는 기본서비스 외에 여러 형태의 건물외곽 내부 등의 감시보호, 출입통제, 주차관리 등은 물론 개인 경호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였으며, 향후 범국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홈 네트워크 및 U-CITY 사업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방법상품으로서 높은 서비스 신뢰도와 새로운 상품개발 전략으로 저희 KT텔레캡은 정부기관, 금융기관, 산업체, 아파트 등으로 고객 대상이 날로 확장 중에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산업체에 저희 KT텔레캡이 더 많

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안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방범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강남지역본부장께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본부의 역할은 한강을 기점으로 수도권 남쪽을 맡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으로 수도권의 지방자치 행정역할에 따라 개발수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개발수요를 예견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산업재해는 정착된 도시보다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안전교육 또한 현실적으로 현장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지도, 그런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KT텔레캡 출동요원들의 경우도 지역 곳곳에서 하루 24시간 한시도 쉼 없이 새로운 건물, 새로운 도로 등을 낱낱이 누비고 다니는 업무 특성상 언제나, 자칫하면 불의의 사고와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시간대와 교통량이 뜸해지는 심야시간대에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 시작전, 긴장이 풀리는 야간 시간대에 마인드 컨트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 기술지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객의 편의, 고객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KT텔레캡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신으로 고객을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회사 사훈에는 고객존중(顧客尊重)이 첫 머리에 있습니다. KT텔레캡 고객분들은 항상 격려와 각성의 회초리를 들고 저희를 일깨워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긴장하면서 고객의 안전과 재산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드리는 것이 KT텔레캡 사업의 가치창조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KT텔레캡은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의 편의와 안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내부고객 만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각종 복지제도, 사이버 교육과정 등을 통한 안전교육, 사내 ERP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용한 상호 대화의 장 마련 등으로 보다 투명하고 다양하게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상호 성장도 도모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 안전한 KT텔레캡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핵가족, 맞벌이 부부, 그에 따른 베드타운 등은 낮에는 모두가 일터에, 그리고 자녀는 학교와 놀이방을 향함에 있어 늘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를 해결하여 안전한 사회를 가꿔나가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방법시스템 KT텔레캡”의 다짐입니다.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저소득 가정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고객과 늘 함께하는 KT텔레캡이 될 것입니다. 

(최종덕 기자)